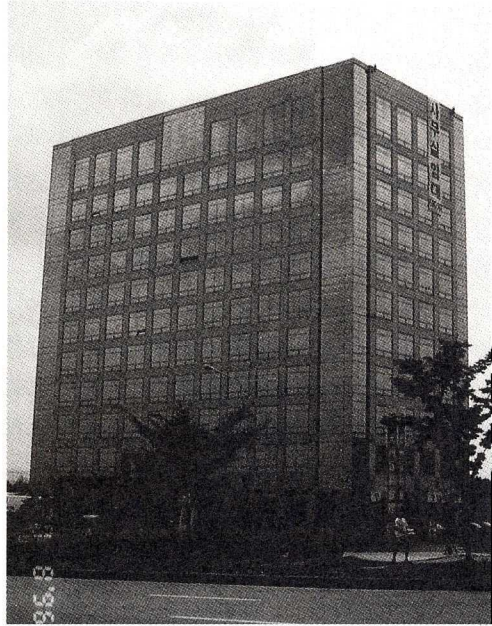


광주무역회관

조 태 업 <교육홍보부 과장>

광주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광주무역회관이 지난 95년 8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립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 관련 업무처리 기관의 산재에 따른 수출입업무 수행상의 비효율성 개선과 무역업체의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무역정보제공 및 각종 연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또한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단일 건



물내 각종 수출입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등 무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호에는 건물이 쾌적하고 개방감 넘치는 공간이 조성된 '광주무역회관'을 소개한다.

1. 개요

광주무역회관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번지 위치에 있다. 대지면적 1만7천6백 제곱미터 대지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옥탑 2층 등 연

면적 2만3천여 제곱미터로 사무실과 무역전시장, 무역연수실, 국제회의장, 무역업 등록 및 갱신, 남북교역 상담, 각종 추천서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무역 서비스센터 운영 등 명실상부한 지방 경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반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유관기관 또는 지원 시설을 한자리에 모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경사진 부지의 특성을 살려 전시장, 오피스, 판매시설이 혼재한 복합건물에

서 오는 동선의 혼잡과 만일의 사고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승강장과 여러 개의 출입구를 만들었다.

또한, 층별 배치는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전시장 컨벤션홀, 금융기관, 상가 등을 지하 1층에서 3층 사이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기반 시설은 지하 2, 3층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건물에 입주사는 30개 사에 25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1일 유동 인구는 400여명에 이른다.

2. 방화시설 및 관리현황

건물의 구조 형태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화강석과 유리로 되어 있고 바닥은 데크판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는 1급~1.5급 건물이다.

각 층별로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되고 계단실은 내화재로 되어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확대되지 않고 제한된 구역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화구획도 설치되어 있다. 천정과 벽 등은 내장재를 불

연재로 사용하고 각종 커튼과 카페트도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였다.

소방서 거리는 1.5km로 3분 거리에 있으며, 주위 건물과는 공지 거리와 진입로도 양호하여 근접 소화도 가능하다.

피난시설에는 복도에 자탐설비를 연동식으로 설치하였으며, 피난 유도등 208개와 통로유도등 68개를 설치하고 있다. 지하 3층에서 12층까지 정전시 비상발전기를 이용하여 전원으로 운행할 수 있는 비상용 승강기도 1대가 별도 구획되어 설치되어 있다. 소방시설에는 소화용수량 141제곱미터 옥내소화전 44개 소 스프링클러 3천6백33개, 소화기 87개, 하론설비 12명, 이산화탄소 1명 등을 유지관리와 이용이 편리하도록 했다.

이 모든 시설은 화재발생방지 및 화재조기발견 및 경보, 피난 유도, 화재진압과 초기소화 등을 고려하여 건물 특성에 맞도록 배치했다.

3. 시설운영

이 빌딩의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건축 1명, 전기 3명, 설비·기계 3명, 방재·중앙감시 3명) 9명으로 구성된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물의 기반시설을 감시, 제어하는 방재센터는 1층에 집중시켜 통합 감시를 하고 있다. 전

력, 조명, 공조, 기계설비를 집중감시 제어할 수 있는 랜디스 기어의 시스템 600을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완벽한 빌딩컨트롤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전관의 화재를 담당하는 방재시스템은 신화전자의 SRE 종합방재시스템을 도입하고 24시간 근무에 의한 완벽한 감시와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빌딩내 입주사 23개사 직원 71명으로 직장자위대를 조직하여 자체내에서 소방 기초훈련과 부분훈련, 종합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광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방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부장과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소방에 관련한 고장사항과 보수에 대한 조치를 즉시 지시하고, 수시로 소방시설도 정상운전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4. 술선수범한 소방업무

이 빌딩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훈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화재는 아주 하찮은 일이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며, 화재예방 또한 쉬운 일이나 조금만 게을리 하면 예상치 못한 사

고가 날 수 있다. 우리 건물 용도상 화재발생 위험은 타 건물에 비해 적지만 소방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가 수시점검하고 술선수범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는 주기적이면서 수시로 점검을 반복해야만 된다는 것은 관리직에서 시설을 담당하고부터 깨달았다고 한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재해가 발생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직원은 스스로 자기맡은 방재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술선수범하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화협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화협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건물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유용합니다. 다만 지적사항을 법규대로 보완하기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현 시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방향도 고려해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면 하는 바램이다.”고 지적한다.

“사고란 철저한 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에 모든 방재시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담당자의 기술관리 능력과 자세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